



여의도에는 책 프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PD들이 많다. 책 프로는 심야 혹은 새벽 시간대에 배정되기 일쑤이고, 그러다 보니 시청률도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그러나 책과 TV간의 공합을 적절한 선에서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책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조(?)격이 될 KBS의 <TV, 책을 말하다>가 그렇다. 2001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오진산 PD(42)를 만나 보았다.

### 책 프로그램은 수면제?

NO, 잠든 사람도 깨우는 책 프로그램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TV, 책을 말하다>는 2001년 KBS 10대 기획 중 하나였던 '책읽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였다. 당초 특집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긍정적인 평에 힘입어 '상설화'에 이른 것이다.

출발부터 순풍가도를 달린 듯 보이지만 방송가에선 '수면제'로 통하는 책 프로그램을 프라임 시간대에서 2여



년 동안 이끌어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입된 인원과 예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제작진의 고심과 결단의 흔적이 보인다.

“과거와는 아주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편성과 예산배정에 이례적으로 적극 지원했죠. 차칫 무모할 수도 있었던 기획이 주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작용한 탓이었죠.” 결과는 성공이었다. 대중성과 교양성이 적절히 조화된 <TV, 책을 말하다>는 책 프로그램의 전범이 되었다.

먼저 시청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방법의 하나로 떠올린 것은 책 내용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패널도 개그맨을 비롯하여 대중에게 친근한 얼굴들을 많이 선보였다. 교양 프로라는 한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시도한 것이다. “시청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TV가 책을 말해야 하는데 아무도 보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엇보다 제작팀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시청자들이다. 지금도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제때 소개해 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하지만 대중성을 고려하다 보니 책 선정에 모든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추긴 어려운 게 문제이고, 그것이 곧 TV 프로의 숙명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청자들 기대가 너무 높아요. 노력은 하지만 매번 모든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은 독자들은 불만을 보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구성을 놓고 고민중이다. “예를 들면 시청자가 흥미와 긴장을 동시에 느낄 정도로 논쟁적인 연사가 뜨겁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이었다가 토론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죠. 세상에 한 가지 생각만 옳을 수는 없으니까요.”

책임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난해 여름방학 즈음 프랑



스의 독서 왕 ‘베르나르 피보’와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출연했을 때입니다. 시청자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내 주셨고 그 즈음 제작진 모두에게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진정성과 직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성스럽게 제작하면 시청자들이 알아준다는 당위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는 것. 그 힘으로 작년 방송대상 교양부문을 수상했다. 책 프로가 시청률 확보와 함께 상까지 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책 소개가 판매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책 선정과정이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TV, 책을 말하다>는 명명백백하다. 자문위원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담당 PD와 작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연다. “선정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주장이 먹혀들기 어려운 구조예요.”

책 담당 프로듀서이니 당연히 책을 좋아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얼마나 맞을까. “원래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교양 담당 PD들은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나 기획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신간들은 대부분 훑어보는 편이죠.”

그렇다면 현재 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은? “진립 먼 블루먼이 쓴 <핫그룹>을 읽고 있어요. 조직에서 내버려두어도 열심히 일하는 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사례 연구가 재미있고 책에서 언급한 ‘길들여지기 거부하는 야생오리’ 처럼 PD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행태가 비슷해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읽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리처드 코니프의 <부자>란 책이다. 동물과 부자의 행태를 관찰을 통해 비교해 나가는 것이 흥미롭다.

오진산 PD는 <TV, 책을 말하다>가 국내 시청률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로 성장해 시청자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자랑할 만한 프로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필**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